

전북도, 성장엔진 인재 양성 산학 ‘맞손’

‘금융도시 전북’ 인재 키운다
청년 모의투자대회 개최



전북대학교-현대자동차
성장엔진 인재육성 추진 협약

20일 전북도청실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성장엔진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대·현대차 계약학과 추진
AI·에너지 첨단산업 인재 육성
도내 13개 대학 초광역 공유체계
청년·유학생 정주 기반 강화

전북도가 20일 도청에서 전북대학교, 현대자동차와 지역 성장엔진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인재 육성 체계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교육·연구를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재를 선제적으로 길러내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피지컬 AI·로봇,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교육·연구 협력 기반 조성 ▲현대차 수요 기반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술협력 포럼을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과제 발굴·수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계약학과 이수 학생의 채용 연계는 향후 사업 전개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도내 13개 대학과 5급3특 초광역 공유대학 운영 및 유학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13개 대학 총장이 자리를 같이했는데 도와 대학들은 교육과정과 유·무형 인프라를

서로 개방해 대학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

도는 이번 두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과 성장엔진산업 육성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산업 현장과 대학의 연결 고리가 단단해지고 지역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전북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지사는 “우리 지역에서 키운 성장엔진 분야의 인재가 산업을 견인하고 우리 고장에 뿌리 내릴 때 더 큰 전북을 이룰 수 있다”며 “도·대학·기업이 함께 손잡고, 청년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도 한시적 체류자가 아닌 도민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배우고 일하며 머무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 당권 레이스 막 올라...예비경선 돌입

20일 전대 후보 합동연설회
대표 3명·최고위원 8명 후보 압축
이성운 통과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8·17 전당대회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실시했다. 합동 연설회는 21일부터 투표를 시작하는 예비경선에 앞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당원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자리다. 당대표 후보는 1인당 7분, 최고위원 후보는 1인당 5분씩 연설했다.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

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전 대표(기호순) 등 5명이다. 당대표 후보 중 예비경선을 통과할 후보로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3명의 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운 의원 △김용 전 민주당원 부원장 △박성준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정민철 정재위 부의장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기호순) 등 1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중 진(이재명)명계로 김민석 전 총리와 같이 하고 있는 후보는 박성준·서미화·이건태·임미애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이다. 또 다른 진명계인 송영길 전 대표와 밀접한 최고위원 후보는 김영호·박선원 의원이다. 정청래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진명계 후보는 최민희·이성운·한민수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유=김영목기자

/장정철 기자

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부안군의회

제10대 부안군의회

이현기
의장

오강환
부의장/자치행정사무위원/의회운영위원

임정숙
의회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

송희복
자치행정위원

김정군
산업건설위원

이강세
자치행정위원

장은아
자치행정위원/의회운영위원

김두례
산업건설부위원/의회운영위원

김원진
산업건설위원

박태수
자치행정위원/의회운영부위원

‘전북 투어버스’ 원스톱 예약시스템 구축

홈페이지·모바일앱 오픈
14개 시군 30여 광역 코스 운영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테마형 관광상품 확대

전북도가 대표 광역 관광상품인 ‘전북 투어버스’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리케이션을 정식 오픈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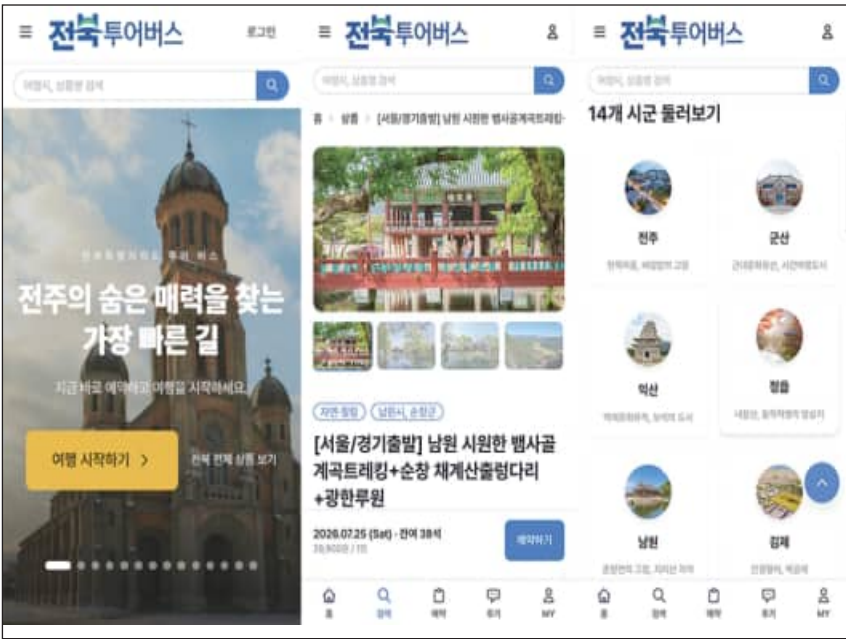
이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구축으로 관광객은 운행 노선과 일정, 이용요금 등을 확인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과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구축한 플랫폼은 이용자가 운

행 코스와 관광상품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과 테마별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여행 일정도 보다 편리하게 계획할 수 있다.

도는 예약 플랫폼 구축과 함께 관광상품도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관광지 중심의 운행에서 벗어나 힐링·치유, 역사·문화, 미식 등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코스를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특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 탐방 코스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30여 개 광역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KTX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과 연계해 자가용 없이도 전북 곳곳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했으며, 전문



‘전북 투어버스’ 앱 메인 페이지와 구동 화면

투어매니저 배치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도 높아 나갈 계

획이다.

/장정철 기자

민주 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위 박지원 체제 출범

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 개최
박지원 위원장 체제 본격화
선출직 상무위원·대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지원 국회의원)는 지난 18일 김제 참예우한우프라자 3층에서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역위원회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당원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인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 이현기 부안군의회의장, 김영자·김주택·김창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상복·오석호·김선곤 상임고문 등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원,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선출직 상무위원과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29일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박지원 지역위원장이 최종 인준된 이후 진행된 지역위원회 조직 정비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전 지역 당원에 게 문자를 보내는 등 완전 공개 방식으로 선출직 대의원을 공모하고 선출해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지원)는 지난 18일 김제 참예우한우프라자 3층에서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역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 조회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당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박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통합적, 포용적 조직 정비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라며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바탕으로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지역위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상무위원회와 전국대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 주민 소통 강화 등 지역 밀착형 정당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과 협력의 정치, 당원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 정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지역위원회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농업기술원 기후대응 벼종자 154톤 생산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북 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산 고순도 벼 종자 154톤 생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재종포 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생산 계획은 지난 5월 11일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특히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와 돌발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보급에 중점을 뒀다.

올해 총 23개 품종, 3,079ha(약 30.8ha) 규모의 재종포를 운영하며, 원원종부터 증식종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생산을 추진한다.

생산된 종자 중 54톤(원원종 9품종, 원종 8품종)은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돼 정부 보급종의 모태가 되며, 자체 증식한 100톤은 도내 브랜드 쌀 재배단지 및 시·군 자율 재종포용으로 공급돼 농가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기존 ‘신통진’의 미질을 유지하면서도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한 ‘신통진1’과 쌀알이 굵고 고온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달하미’, 가공용 쌀 ‘바로미4’를 생산 리스트에 포함해 농가 선택권을 넓혔다.

또한 유전적 순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상위 단계인 원원종 생산 과정에서 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모를 심는 ‘손이앙’ 방식을 채택하여 이형주 혼입을 원천

윤준병,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 발의

초과요금·자릿세 요구 금지
사용료 게시 의무화 추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적법한 권원(정당한 권리)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



윤준병 의원

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적법한 권원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이나 피서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조례를 위반해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정당한 권 없이 자릿세를 요구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수욕장 내 영업장소나 대여시설에 직접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조치와 조사 권한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욕장 피서용품 및 시설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수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본사 사령>

△ 체육부 기자 최성민

-2026년 7월 21일자-

차단했다.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아 재종포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배치하는 등 작업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최적의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향후 분담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10월 하순 수확 후

엄격한 종자 검사를 거칠 예정이다.

서경원 종자사업소장은 “우수한 종자는 전북 농업 발전의 초석”이라며, “기후변화에 강한 고품질 종자를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행동으로 전하는 사랑, 오늘도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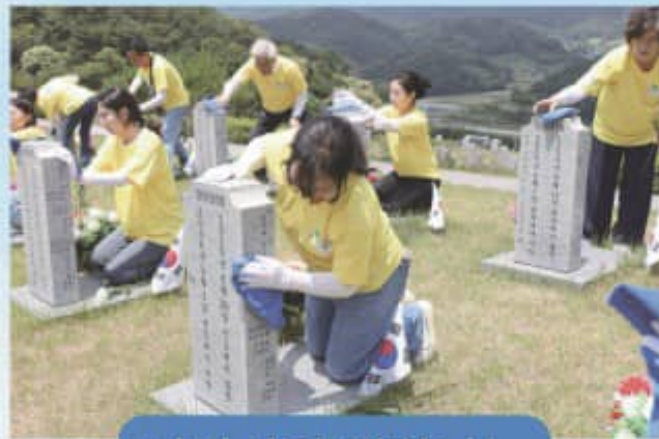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피며, 환경을 가꾸는 일에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헌혈봉사



김치나눔



나라사랑 평화나눔



환경정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전주교회



전북축산단체연,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촉구’

전북, 전국 축산 중심 농생면산업 핵심지 “국가균형 실현 위한 중요한 과제” 강조

“농협중앙회, 이제는 전북에서 대한민국 농축산업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전북축산단체연합회가 20일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지역 축산단체 대표와 축산농가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은 농업·축산 현장의 국가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한우, 한돈, 낙농, 산란

계, 오리, 흑염소, 양봉 등 다양한 축종이 고르게 발달한 전국적인 축산 중심지이자 농생면산업 핵심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꼽았다.

관련해 (사)전북축산단체연합회는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은 “농업·축산 정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도 설명했다.

전북축산단체연합회는 “농협은 농업

인과 축산인이 주인인 협동조합인 만큼 정책과 사업도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권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국산 기능성 ‘도담쌀’ 시장 키운다”

케이(K)-기능성 쌀 세계 가공식품 진출 전략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오늘 ‘기능성 쌀 도담쌀 산업 활성화 공동 연구(워크숍)’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도담쌀’ 국유 특허 기술 활용도를 높이며 생산 지자체와 기술이전업체 간 상생 협력 및 국내외 판로 진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식이섬유 일종인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한 국산 기능성 쌀 품종이다.

특히 복합 열 가공 기술(특허등록)을 적용할 경우 저항전분 함량이 증대된다. 비만 환자 대상 인체 적용 시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38.2% 감소시키고, 당독소(AGEs) 축적을 3% 줄이는 등 당뇨 및 대사성 질환 예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최근 동물실험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증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해 대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추가 구명해 국산 쌀의 핵심 건강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유관 기관과 ‘도담쌀’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정부(진천군, 남해군) 및 유기농 생산 지역(곡성군) 관계자가 본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대회의실(경기도 수원시)에 참석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담쌀’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개발·유통 중인 업체 등 총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다.

분야별 발표에서는 △가공식품 세계 시장(미국) 진출 동향 및 사례(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 △기능성 표시 식품 사전 심의 제도 및 사례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정명섭 원장) △‘도담쌀’ 연구 개발 주요 성과 및 기술이전 현황(국립식량과학원 박지영 연구사) △기술이전 업체 사업 모델 공유 및 사례(바이오모아메디칼 이동한 대표) 소개 이후 농촌

진흥청은 ‘도담쌀’ 원료곡 안정적인 계약재배 확대와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성 인정 제도(GRAS) 등 국제 인증 대응과 해외 판로 개척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상공업계, JB금융지주·BNK금융지주 합병 철회 성명

“지역금융 정체성 훼손 제3금융중심지 역행”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20일 ‘JB금융지주·BNK금융지주 합병 제안 철회 촉구 전북 상공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합병’ 논의는 지역금융 정체성을 훼손하고 전북경제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의 흐름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병 제안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역금융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다시 지역기업과 도민에게 공급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규모의 경제와 기업가치 제고만을 앞세운 합병 논리는 지역금융이 수행해 온 공공적 역할과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은행 경쟁력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신뢰와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에서 비롯된다”며 “지역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금융그룹을 단기적인 투자수의 논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지역금융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전북은행은 수십 년간 전북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전북경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역할과 가치는 단순한 기업가치나 주주이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역사회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그룹차원 자본 배분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전북의 금융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과 지역기업 금융지원 축소 가능성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금융은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야 할 공공적 기반이며, 단기적인 투자수의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JB금융지주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를 지키는 책임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지역 금융은 지역경제를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지역금융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합병 논의에 반대하며,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합병’ 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구역전기협회 ‘전기안전협력’ 워크숍

송·변·배전설비 안전성 강화 기술교류 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전기 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문화 확산 위한 ‘전기안전협력 워크숍’이 지난 16일 진행됐다.

올해 8회째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구

역전기협회가 동참해 송·변·배전설비 안전성 강화 기술교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역전기협회는 구역전기사업자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설비사고 예방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보탠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최병우 전기안전공사 전력계통검사처장과 우재화

구역전기협회장 등 실무 관계자 60여명이 현장 중심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새롭게 HD현대이엔에프가 구역전기사업자로 참여해 현장 적용 사례 중심으로 기술 교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22.9kV 배전계통 위험성 평가 제도화 방향 연구 △154kV 유입변압기 상부 방압안전장치 절연

유 누유 보수 △초고압 송전선로 내 보호계전 성능 향상 연구 등 최신 기술과 우수 사례를 담은 5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전기안전공사 최병우 전력계통검사처장은 “워크숍을 통해 구역전기설비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지역 여성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20일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회원사 대표 15여명 등과 ‘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북중기청은 이번 간담회를 “지역 여성벤처기업 경영 애로 또는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전북중기청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여한 지역 여성벤처기업 회원사 대표들은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기술혁신 등 현재의 다양한 기업 성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더불어 △정책자금 확대 △R&D 기회 확대 △친환경 소공인 성장 지원체계

구축 △AI 디지털 전환 대응 등 기업 성장 현장 규제 개선에서도 같은 소릴 냈다.

이 자리에서 회원사 대표들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라며 여러 기업경영 애로사항 관련 소리를 축소에 내밀기도 했다.

이에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간담회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전북지방청은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지속적인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기업을 운영



하면서 겪는 ‘어려움’, ‘불편’, ‘개선’ 사항까지도 지속적인 기업현장 소통을 통해

체감형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지방우정청>

“무거운 소포 마을회관에 맡기세요”

전북지방우정청

‘소포접수 서비스’ 운영

전북지방우정청 농촌 읍·면 교통 불편 약자 등의 지역 주민 편의의 위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 ‘우리동네 소포접수 서비스’은 고창군 내 1읍 3개면(고창읍, 고수면, 흥덕면, 아산면)의 10개 대표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소 25% 소포요금 할인 혜택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 소포 서비스는 주민이 지정된 마을회관에 소포와 요금을 가져다 놓으면 담당 집배원이 소포를 수거해 우체국에서 접수하

는 형태다.

접수가 완료되면 집배원이 영수증을 다시 마을회관 지정 장소에 보관해 소포를 발송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해 송암마을 한 주민은 “그동안 무거운 농산물 택배를 보내려면 택시를 타거나, 이장님께 부탁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 앞 마을회관에 맡겨두기만 하면 집배원이 가져가서 영수증도 가져다줘 우체국 지역민 사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농어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소외지역 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소민 기자

농업 에너지 전환 ‘산·학·연·관 머리 맞대’

‘관계와 소통’ 강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공학부 대강당에서 ‘농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전략 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농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복합 열원 기술을 활용한 농업 에너지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신성이엔지를 비롯한 산·학·연·관 전문가와 농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총 7개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전력 및 열에너지 활용 농업 에너지 자급 방안 △공기열 히트펌프 및 태양열·광(PVT) 융합 시스템 실증사례 및 농업적 활용 등이다.

이어 종합 토론 시간에는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농업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성재훈 원장은 “농업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은 물론,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산지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 농업인, 드론 고장 직접 해결한다

15명 ‘드론정비사’ 자격증 취득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협력해 ‘드론정비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농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파종과 방제 등 다양한 영농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 업체에 정비를 맡겨야 해 농가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드론의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드론 고장에 신속히 대응해 농작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는 농업인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드론의 구조와 정비 이론을 배우고, 실제 기체를 분해·점검한 뒤 비행 상태를 확인하는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웠다.

교육과 자격검정을 마친 결과 참여자 15명 전원이 드론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한국농수산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드론 고장에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가 정비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폭염 대응 안전망 강화 2(題)

완주군, 폭염 대비 농촌 현장 안전 관리

완주군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3개 읍면 현장 순회와 마을 방송, 안전문자 발송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상담소와 협력해 13개 읍면 농촌 현장을 순회하며 농업인의 건강 상태와 작업 여건을 살피고 있다.

현장순회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작업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낮 고온시간대에도 작업 중인 농업인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풀림 햇빛가리개와 쿨타월, 이온음료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은 7월 1일부터 하루 2회 마을방송을 실시해 폭염 시 농작업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문자를 발송해 기상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군은 고령농업인과 야외작업 농업인을 중심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에게 △ 고온시간대 농작업 자제 △ 충분한 수분 섭취 △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 △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 중단 등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거듭 안내하고 있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상담소와 긴밀히 협력해 13개 읍면 농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순회와 마을방송, 안전문자 발송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폭염특보 시 야외시설 탄력 운영



순창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3일간 야외체육시설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한낮 시간대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보가 발령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 제한 대상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제일고 앞), 팔덕다용도보조경기장, 섬진강파크골프장, 유동

힐링파크골프장, 쌍치파크골프장 등 모두 6개 야외체육시설이다.

군은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용 제한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군민들에게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여러분께서는 폭염특보가 발령된 시간대에는 야외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소방서 제6대 이경승 서장 취임

‘진성’ 복무방침 제시 예방행정·현장대응 강화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21일 제6대 이경승 서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95년 4월 12일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후 31년간 재난 현장과 소방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원단장과 제17대 고창소방서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제6대 완주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이 서장은 복무방침으로 ‘진성(盡誠, 매사에 정성을 다하다)’을

제시하며 모든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완주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군민의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복무방침인 ‘진성’의 마음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완주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무공해 전기지게차 첫 보급

4톤 미만 전기지게차 지원

31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을 20일부터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31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1천만 원 규모로 1대 추진되며,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지게차로 들어올릴 중량이 4톤 미만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무공해 건설기계의 규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대상과 세부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구이면, 마을 순회 소통행정 본격화

46개 마을 순회 경로당 간담회 신임 면장, 주민 애로·건의 청취

완주군 구이면이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주민들과의 따뜻한 첫 대면을 위해 발 빠른 소통 행보에 나섰다.

구이면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관내 9개리 46개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마을 순회 소통 간담회’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이성진 구이면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취임 인사를 건네고, 마을 현황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면정에 적극적으로 녹여내는 민생행보다.

첫날인 14일, 경로당을 찾은 이성진 면장은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따뜻한 부임 인사를 전했다. 이어 민선 9기 군정 및 면정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관리 수칙과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상세히 안내하며 정감 어린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보고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면장이 현장에서 즉각 대답하는 ‘주민 중심의 공감 행정’ 형태로 진행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새로 온 면장이 직접 찾아와 진지식처럼 살갑게 손을 잡고 안부를 물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이면은 이번 마을 순회 간담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완주군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 연계 청소년 진로 체험

완주군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연계해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 알의 비밀을 찾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전문 연구 인력과 교육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농업과학의 원리와 농업연구사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농업과 과학이 융합된 미래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의 지도를 받으며 과실 품질 분석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과일의 특성과 품질 정보를 학습한 뒤 당도와 산도 측정 원리를 익히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분석 방법을 실습하며 농업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이서문화체육센터

여름방학 초등생 수영특강 운영

완주군시설관리공단단이 이서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 단기 집중반’ 수강생을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짧은 방학 기간을 알차게 활용해 초등학생들이 수영의 기초를 완벽히 다지고 수상 안전 대처 능력을 빠르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단기 속성 과정이다.

그동안 강습을 희망해 온 학부모와 완주군민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교육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강습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주 5일(총 10일) 동안 운영되며,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40분간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서문화체육센터 안내데스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희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휴 시간대를 적극 활용한 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보건소

만성질환 합병증 무료검사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남원의료원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합병증 무료검사 대상자를 2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검사는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으로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50세 이상 만성질환 고위험군이다. 검사 항목은 당화혈색소, 심전도, 갑상선 기능검사 등 34종 이상이며, 검사는 8월 14일까지 남원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방문보건팀(063-620-7743)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만호 HANSAEM 회장

순창 고향사랑기부 4년째 동행

순창군은 20일 HANSAEM 김만호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2023년부터 4년째 고향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과면 출신인 김만호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기부에 참여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김만호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탬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4년째 변함없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김만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으로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입

12월 14일까지…비대면 병행 자진 신고 땀 과태료 감면

남원시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조사(7월 20일~9월 7일)와 거주지 방문조사(9월 8일

~11월 9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이 포함된 세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시민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주민등록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직장인 등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세대는 9월 7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어린이 물놀이장 25일 개장

8일간 운영 안전요원 상시 배치 워터슬라이드·에어풀장 등 마련

순창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8일간 무료로 운영한다.

지난 2023년 처음 문을 연 이 물놀이장은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해마다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청년회외소(회장 오유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을 맡는 이번 물놀이장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순한 물놀이 시설을 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순창군>

현장에는 에어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며, 그늘막 쉼터와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돼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8일간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은 휴장한다.

순창군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쳤으며, 운영 기간에는 물놀이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 선순환체계 강화

가공창업 아카데미 수료

농산물 가공 전문가 28명 배출

완주군이 농민 주도의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 전문가 28명을 새롭게 배출했다.

완주군은 지난 16일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농민가공 활성화와 농업인의 가공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20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운영됐으며,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끝까지 이수 한 총 28명의 농업인이 수

료의 기쁨을 안았다.

교육생들은 총 36회(144시간)에 걸쳐 반찬, 건식, 습식, 소스, 발효, 쿠키 등 6개 과정의 실습 중심 교육을 이수하며 농산물 가공기술과 제품개발 역량을 키웠다.

특히 맛과 향,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한 가공먹거리 개발에 중점을 뒀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로컬푸드 가공공동체(협동조합)에 가입해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직접 가공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

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직접 가공에 참여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민가공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이 가공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하일렌요양병원·창명레미콘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하일렌요양병원 장익완 병원장과 창명레미콘 장익중 대표가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안군 애향운동본부 장용석 본부장의 독려로 장남인 장익완 병원장과 차남인 장익중 대표가 함께 뜻을 모아 실천한 것으로, 가족이 함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장익완 병원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온 고액기부에 이어 올해도 고액기부를 실천하며, 고향 부안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가족이 함께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임실 지사면,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 운전자 안전 확보

임실군 지사면이 여름철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군도, 지방도, 면도 등 7개 노선, 총연장 30.2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덩굴류, 잡관목 등을 정비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지사면은 이번 작업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의 통행 편의 증진은 물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변 환경정비를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식 지사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지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남원시 약사회, 취약계층 위한 보양식 나눔

“무더위 이겨내세요”
어르신들에 삼계탕 전달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초복을 맞아 지난 15일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KPA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남원시 약사회, 남원시 여약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삼계탕을 비롯해 이불세트, 의약품, 후원금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임진일 남원시 약사회장은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시기에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의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남원시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와 관계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며 폭염 대비 생활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와 남원시 약사회, 남원시 여약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삼계탕을 비롯해 이불세트, 의약품, 후원금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임진일 남원시 약사회장은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시기에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진석 남원시노인복지관장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와 남원시 약사회, 남원시 여약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역사회의

<사진=남원시>

따뜻한 나눔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남원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종혁 치과의원, (재)고창군장학재단에 1천만원 기부

인재 육성·교육 환경 개선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임종혁치과의원(원장 임종혁)이 고창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종혁 원장은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

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고창군 인재 양성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임종혁 원장은 “고창에서 치과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큰 사랑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고창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란다고 밝혔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심덕섭 고창군수)은 “2024년부터 매년 거액의 장학금을 아낌없이 기탁해 주신 임종혁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귀중한 장학금은 고창의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고창군장학재단 2026년도 장학금 기탁 누계는 지난 14일 기준 총 41건, 1억 1천 7백만원에 달하며, 기탁된 장학금은 성적 우수 학생, 예체능 특기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 등 고창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초산동, 어르신 400명에 삼계탕·수박 대접

정읍시 초산동체육회(회장 이준석)는 지난 16일 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초산동 건강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산동체육회가 주관하고 (사)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가 후원으로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 400여 명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대접하며 이웃의 정을 나눴다.

초산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회원들

도 봉사에 힘을 보탰다. 회원들은 삼계탕 배식과 수박 준비, 행사장 안내 등을 맡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준석 회장은 “어르신들이 보양식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행사를 후원해 주신 (사)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와 더운 날씨에도 발 벗고 나서준 지역 단체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미륵산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익산시 중앙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보급자리를 세롭게 꾸미는 집수리 봉사가 펼쳐졌다.

중앙동은 ‘미륵산봉사단’(단장 이후범)이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미륵산봉사단은 지난 19일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찾아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 안팎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 위기가정

지원사업인 ‘익산희망이음’과 연계해 추진됐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미륵산봉사단의 재능기부가 더해져 대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후범 단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와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주)삼진정공 전주공장, 완주군에
서클레이터 50대 전해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임)가 (주)삼진정공 전주공장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냉방 여건이 취약한 정신질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도울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최근 (주)삼진정공 전주공장으로부터 관내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클레이터 50대를 후원받고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김광희 (주)삼진정공 전주공장 이사과 강남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실무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 나눔 실천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삼진정공 전주공장은 지난 3년간 해마다 두차례씩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광희 이사는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나운3동 지사협
경로당 어르신 여름나기 응원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진희 위원장과 김종희 위원은 지난 20일 중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30개소를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임진희 위원장과 김종희 위원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수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수박을 기탁한 임진희 위원장과 김종희 위원은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왕근 나운3동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임진희 위원장과 김종희 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해요!

횡단보도 이용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소방차, 응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에 방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보호대까지 착용하여 더욱 안전하게!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화재 위험! 분리하여 사용하자	중간밸브 잠그기 가스레인지 장시간 사용 시 환기도 필수!

〈一事一言〉



갈등의 늪 건어낸 김의겸의 폭심, ‘새만금 상생’의 물꼬를 트나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1호 법안에 담긴 해안...

‘따로 또 같이’ 지역소멸 해법 제시

새만금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 위대한 국책 사업이자, 동시에 전북 자치도민들에게는 오랜 애증의 대상이었다.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이 기회의 땅으로 채워지는 동안, 그 땅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벌여온 반목과 대립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나의 새만금을 두고 세 갈래로 찢겨 싸우던 소모적인 갈등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상생’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던져졌다.

김의겸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특별법」은 바로 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3개 시·군의 독립적인 행정구역과 자치권은 철저히 존중하되, 새만금 개발로 창출되는 미래 신산업의 이익은 공유하는 ‘따로 또 같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역사스러운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민 간 감정적 골을 깊게 만드는 대신, 실리 중

심의 상생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이 대승적 결단과 논조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법안은 특히 이월택 전북도지사가 제시한 공약과 전북도의 공동발전전략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회와 지자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이뤄낸 ‘공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새만금을 단순한 서해안의 매립지가 아니라, RE100과 그린수소, AI 기반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기술 주권의 심장으로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원대한 비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파격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특례는 단순히 전북에 주는 특혜가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첨단산업 영토 확장을 위한 정부의 당연한 투자이자 의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

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산, 김제, 부안 3개 지자체의 단단한 상호협력 의지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막상 눈앞의 작은 이익을 두고 또다시 밧고르 싸움을 벌인다면 특별지자체연합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향후 단체장 순차제(윤번제)나 공동 의회 구성 등 세부적인 조율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소지역주의를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경계를 나누는 통합이 아니라 경계를 키우는 협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운명공동체로 바라보는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은 전북이 분열을 극복하고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전국의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3개 지자체의 철석같은 연대 의지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새만금은 비로소 갈등의 바다를 넘어 상생과 번영의 땅으로 우뚝 설 것이다.

오늘의시

장마 / 김 사 인

공작산 수타사로
물미나라나 보러 갈까
패랭이꽃 보러갈까
구쭈쭈 비는 오시는 날
수타사 요사채 아랫목으로
젖은 발 말리러 갈까
들창 너머 먼 산이나 보러갈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비 오시는 날
늘어진 물푸레 곁에서 함박꽃이나 한참 보다가
늙은 부처님께 절도 두어 자리 해바치고
심심하면

그래도 심심하면
없는 작은 머느리라도 불러 민화투나 칠까
수타사 공양주한테, 네기덜
누룽지나 한 덩어리 얻어먹으로 갈까
긴 긴 장마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재학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한 청년 문사였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한국문학의 현단계’에 평론 ‘지금 이곳에서의 시’를발표했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전주에 정착해 詩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약, 호기심에 잡힌 아이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단연 ‘청소년 마약’입니다. 과거 특정 계층의 일탈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미래를 송두리째 갇아먹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마약이 확산된 배경에는 ‘순쉬운 접근성’이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SNS나 다크웹, 익명 채팅방을 통해 마치 배달 음식을 주문하듯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이른바 ‘다이어트 약’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탓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마약 투약이 뇌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중독 속도가 성인보다 훨씬 빨라 단 한 번의 호기심만으로도 평생 해를 입을 수 없는 파멸의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억제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거대한 덩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면밀한 관찰,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구하는 일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위 김현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 01일 창간	2011년 10월 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말복지시 010-3015-478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C

O₂

↓

JBT

전북타임스신문

전북타임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 공동주최

제14회 전북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성료



▲ 대상 전주오송초 조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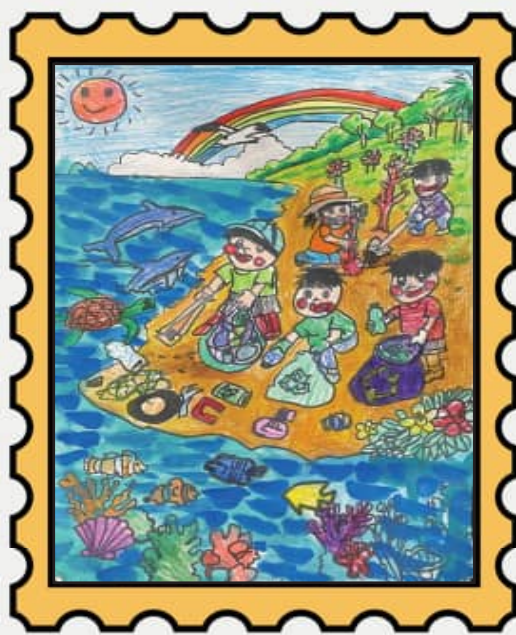
▲ 대상 전주오송초 박수민



▲ 대상 정읍서초 전서연



▲ 최우수상 전주오송초 최민지



▲ 최우수상 정읍서초 박성현



▲ 최우수상 이서초 박유주



▲ 최우수상 정읍서초 김에서

대상 전주오송초 조해준·전주오송초 박수민·정읍서초 전서연 수상 '영예' 최준호 대표 "순수하고 건강한 삶 대한 인식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전북타임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최한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20일 성황리에 마쳤다.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도내 꿈나무들에게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한 문예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회로 전환된 이후 6회째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전북도 내 17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그림 실력을 뽐냈다.

도내 초등학교와 학원 등에서 총 300여 명이 참여했고,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제로, △자연환경이 보존된 청정전북, △다양한 전북지역 환경보전

이야기 △순수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 등을 화폭에 담았다.

대회 수상작은 총 80점이며(대상 3명, 최우수상 4명, 특별상 3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50명) 대상(전북교육감상 1명, 전북도의회상 1명, 전북도지사상 1명)의 영광은 전주오송초등학교 6학년 조해준 학생(전북도지사상)과 전주오송초등학교 6학년 박수민 학생(전북도의회상), 정읍서초등학교 5학년 전서연 학생(전북도교육감상)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순수하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보호를 표현한 것을 높게 평가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전주오송초 4학년 최민지 학생(전주시장상)과 정읍서초등학교 1학년 박성현 학생(전주시장상), 이서초등학교 1학년 박유주 학생(전주시의장상), 정읍서초 3학년 김에서 학생(전주시의장상)이 선정됐다.

특별상(국회의원상)은 정읍서초 5학년 김시후 학생과 전주오송초 5학년 설아현 학생, 한솔초 1학년 이하은 학생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이명휘 前전북미술학원연합회장(심사위원장)과 전북예총 이경로 사무처장, 셰마어린이집 박유진 원장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9월 4일 학교와 참여단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향후 전북타임스 전시회, SNS, 홍보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전북 지역의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총 심사를 맡은 이명휘 심사위원장은 "올해 대회는 예년보다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서적 감성이 다수의 작품에 표현됐다"며 "여기에 심사위원들은 초등학생으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순수하면서 뛰어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작품은 뛰어났지만 초등학생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는 인위적인 작품은 탈락했고, 보편적으로 작품은 매우 우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타임스 최준호 대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과 보호 문제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며, 보존된 청정한 삶의 터전에서 순수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수상(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20)은 △송천초 4학년 이연우 △정읍서초 2학년 정우진 △정읍서초 2학년 허승혁 △고창초 5학년 장소윤 △정읍서초 2학년 박지율 △삼천초 4학년 공서준 △정읍서초 3학년 박시윤 △한솔초 2학년 이하린 △고창초 2학년 김예원 △정읍서초 3학년 이나경 △정읍서초 2학년 민서아 △전주흥산초 6학년 김예주 △자연초 3학년 이태이 △완산서초 4학년 엄하준 △한솔초 1학년 나서우 △정읍서초 3학년 김지율 △정읍서초 3학년 김시우 △정읍서초 2학년 송도영 △이서초 5학년 정은유 △전주인봉초 2학년 문진서 등 총 20명이 수상했다.

■ 장려상(전북타임스상)은 △정읍서초 4학년 정연서 △정읍서초 3학년 한지우 △정읍서초 3학년 이해솔 △정읍서초 6학년 이지우 △정읍서초 5학년 박준수 △정읍서초 6학년 송이솔 △정읍서초 6학년 정하늘 △신대인초 1학년 김소윤 △완산서초 2학년

엄하연 △한솔초 3학년 임유은 △화산초 4학년 박지윤 △완산서초 5학년 김슬미 △보성초 5학년 신예나 △전주흥산초 4학년 김현명 △정읍서초 1학년 김고운 △소양초 5학년 윤현서 △정읍동신초 4학년 최주연 △전주인봉초 2학년 전가빈 △전주기린초 1학년 양다빈 △완산서초 2학년 위윤교 △동신초 1학년 강건울 △전주동초 1학년 손신후 △효자초 5학년 양지안 △정읍서초 1학년 박서아 △정읍북초 1학년 송주원 △한솔초 3학년 최은서 △영원초 1학년 이가빈 △정읍서초 2학년 이초하 △고창초 2학년 정서윤 △고창초 2학년 남예린 △정읍서초 1학년 오시안 △정읍서초 1학년 이주원 △정읍서초 2학년 권이름 △정읍서초 1학년 한경 △고창초 1학년 김서윤 △정읍서초 2학년 나운찬 △백암초 2학년 정예린 △전주흥산초 6학년 이민서 △한솔초 2학년 양윤서 △한솔초 5학년 전소윤 △정읍서초 2학년 오정원 △한솔초 4학년 최윤별 △자연초 3학년 문혜은 △정읍서초 2학년 정라는 △삼천초 3학년 박서연 △한솔초 2학년 장채원 △정읍서초 3학년 오예림 △정읍서초 3학년 김건호 △한솔초 3학년 김주아 △정읍남초 3학년 박현서 등 총 50명이 수상했다.

/최성민 기자